

2023 정회원 연수

사도행전 28장속 바울의 순교 여정 12일

[멜리데, 수라구사, 보디올, 로마]

장소 : 몰타 공화국, 시칠리아, 이탈리아 [나폴리, 로마, 아씨씨, 피렌체]

2023년 6월 11일 [주일] - 22일 [목]



일정표 (현시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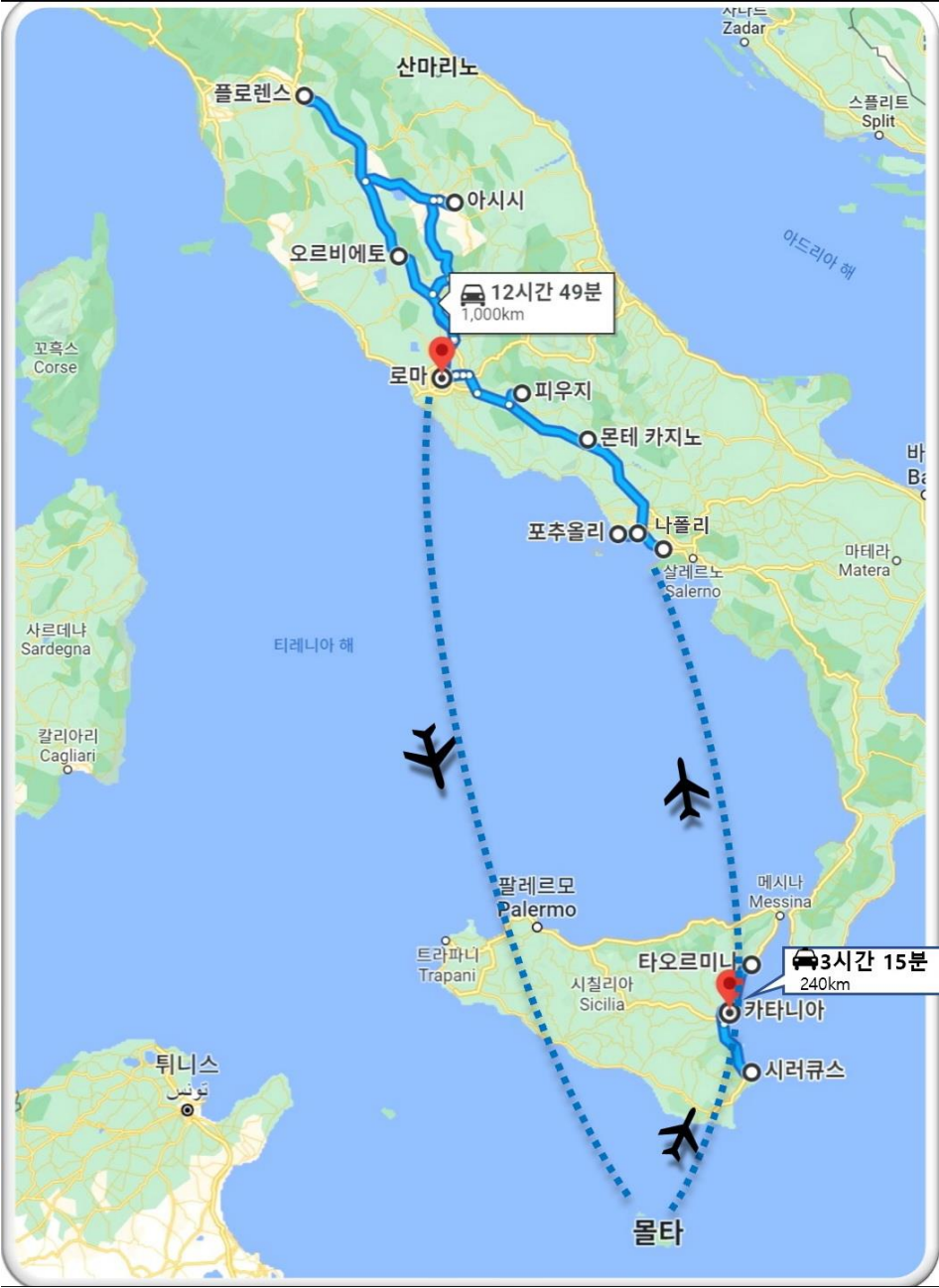
여행지역 : 몰타공화국, 시칠리아, 이탈리아

인솔자 연락처 :

DATE 날짜	PLACE 장소	TRANSFER 교통편	TIME 시간	DESCRIPTION 여정
제1일 11/JUN (주일)	인천	EK323	23:55	인천공항 출발 / 두바이 향발 (9시간 30분 소요)
제2일 12/JUN (월)	두바이 몰타	EK97	04:25 08:00 14:05	두바이 도착 (4시간 45분 환승) 두바이 출발 (5시간 25분 소요) / 몰타 향발 루카 몰타 국제 공항 도착 홍기석 목사님 미팅하여 사도바울의 배가 파선하여 정박했던 사도바울 동상이 서있는 바울 도착섬 (행 28:1 멜리데섬) 사도마을의 만 (St., Paul's bay) 사도바울 난파 기념 교회 보블리오의 집 등 호텔 이동 휴식
제3일 13/JUN (화)	몰타	전용버스	07:30	호텔 조식 후 중식 후 몰타의 옛 수도이자 귀족들이 살던 성채 엠디나 (행 28:7 Old city Imdina) 보블리오의 집터 위에 세운 바울 기념교회 Ferry 를 타고 기원전 5000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고조섬으로 들어가 빅토리아 탐방 호텔 이동 휴식
제4일 14/JUN (수)	몰타 카타니아 (시칠리아)	전용버스 KM642	08:00 21:50 22:30	호텔 조식 후 몰타의 수도 발레타 탐방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재에 등재됨 성요한에게 바쳐진 성요한 기사단을 위한 공식 성당인 성 요한 성당 (St. John Co-Cathedral) 엠디나의 사도바울 대주교성당과 함께 공동 대주교 성당이다. 까라바조의 대작 세례요한의 참수 그림이 있다 엘모성채 뒤 바울파선 기념교회 석식 후 몰타 출발 / 카타니아 향발 (40분 소요) 카타니아 도착 호텔 휴식
제5일 15/JUN (목)	카타니아 시라쿠자 파오르미나 카타니아	전용버스	09:00	호텔 조식 후 바울이 도착한 시라쿠자 (행 28:12 수라구자) 로 이동 (70KM 1시간 소요) 중식 후 파오르미나로 이동 (120KM 1시간 30분 소요) 그리스 원형극장과 구시가지 탐방 후 카타니아로 귀환 (55KM 1시간 소요) 석식 후 호텔 휴식

제6일 16/JUN (금)	카타니아 나폴리 폼페이 보디올 몬테까씨노 피우찌	전용버스 EZY4108 전용버스	06:30 08:15 09:20 10:30	공항으로 이동 카타니아 출발 / 나폴리 향발 나폴리 도착 폼페이로 이동 (30KM 30분 소요) 폼페이 유적지 관람 중식 바울이 입성한 보디올로 (행 28:13) 이동 (47KM 45분소요) 바울이 이탈리아에 도착한 보디올 항구 바울기념교회 방문 후 바울이 걸었던 압빠아 가도를 통해 성 베네딕트 수도회의 본원인 몬테 까씨노 수도원으로 이동 (115KM 1시간 30분 소요) 수도원 탐방 피우찌로 이동하여 (100KM 1시간) 석식 후 호텔 휴식
제7일 17/JUN (토)	피우찌 로마	전용버스	08:00	피우찌 출발 / 로마 향발 (90KM 1시간 소요) 로마 도착하여 바티칸 박물관, 성 베드로 대성당, 성베드로 광장 탐방 후 중식 바울이 1차로 수감되었던 마메르티눔, 콜롯세움, 로마공회장 (포로로마노), 개선문등 누가의집, 카타콤베, 바울참수터, 방문 후 석식 후 호텔 휴식
제8일 18/JUN (일)	로마	NO BUS	09:00 15:00	호텔 조식 후 4대 대성당 중 하나인 성모마리아 대성당,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이 있는 쇠사슬의 성베드로 성당 루터가 주기도문을 외우며 올랐던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심판 받으실 때 걸어 올라가셨던 본디오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불리는 성계단성당, 4대 성당중 하나인 12사도의 조각상이 서있는 요한성당 중식 후 로마연합교회 주일 예배 (15:00) 석식 후 로마 야경 투어 및 자유시간 (스페인 광장, 트레비분수,판테온, 나보나 광장) 호텔 휴식
제9일 19/JUN (월)	로마 피렌체	전용버스	09:00	호텔 조식 후 르네상스 문화의 발상지인 피렌체로 이동 (275KM 3시간 30분 소요) 사보나롤라의 화형식이 있던 시노리아 광장, 꽃의 성모마리아 대성당, 세례탑, 단테 생가, 미켈란젤로 언덕 등 탐방 석식 후 호텔 휴식
제10일 20/JUN (화)	피렌체 인치사 아씨시	전용버스	09:00 12:00	호텔 조식 후 THE MALL (구치, 프라다등 아울렛 방문 가능) (30KM 40분 소요) 프란체스코의 고향이자 사역지인 아씨시로 이동 (150KM 2시간 소요) 아씨시 도착하여 중식 후 성 프란체스코 성당, 신타 끼아라 성당, 성 루피노 대성당등 석식 후 호텔 휴식
제11일 21/JUN (수)	아씨시 로마	전용버스	09:00 11:30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2시간 30분 소요) 로마 피우미치노 국제공항 도착

			15:25 23:15	공항에서 간단한 중식 로마 출발 / 두바이 향발 (5시간 50분 소요) 두바이 도착 (4시간 25분 환승)
제12일 22/JUN (목)		EK98	15:25 23:15	두바이 출발 / 인천 향발 (8시간 20분 소요) 인천 국제공항 도착



몰타

바울의 4차 선교여행(사도행전 27-28장)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 모함을 받고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된다. 그리고 로마 총독부가 있던 가이사랴로 호송되어 2년간 옥에 갇혀 있다가 당시 로마의 예루살렘 파견 총독이었던 벨릭스와 그 후임 베스도에게 재판받는 중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을 것을 상소한다. 이 상소로 바울은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하여 죄수의 몸으로 군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된다. 로마로 가는 항해 중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 배가 파선되어 원래 예정에 없었던 멜리데(몰타)라는 섬에 상륙하게 된다.

몰타

몰타(Malta)는 지중해 한가운데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로서 총 6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 몰타는 기원전 4천 년경부터 인류가 살기 시작한 고대문명지 중의 하나이다. 몰타는 그리스, 카르타고, 로마, 비잔틴, 아랍, 스페인 등의 지배를 받다가 1530년부터는 성 요한 기사단의 지배를 받았다. 1798년에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이끄는 프랑스군에 점령되었고, 그 뒤 파리조약에서 몰타 영유권을 인정받은 영국에 의해 1814년부터 약 150년간 지배를 받았다. 1964년 9월 21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영국 연방으로 남아 있다가 1974년에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제로 변경하였으며, 2004년 유럽 연합에 가입하였다. 몰타공화국의 섬 중 가장 큰 몰타(Malta)섬은 문화, 상업, 행정의 중심지이며 수도인 발레타(Valletta), 옛 수도인 엠디나(Mdina) 등의 도시가 있다.



바울이 난파하여 도착한 바울섬

사도 바울의 난파 사건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28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바울이 탄 배가 난파당하여 몰타섬에 상륙한 것은 약 60년 12월경으로 여겨지는데, 그런 연유로 몰타에서는 2월 10일을 바울 난파축제(The Feast of St Paul's Shipwreck)로 기념하고 있다. 현재 바울이 처음으로 상륙한 섬은 축구장 두 개 만한 크기로 이루어졌으며, 아무도 살지 않지만 바울의 도착을 기념하는 동상이 19세기에 세워졌다. 그리고 이 섬 앞 해안을 바울만(St. Paul's Bay)으로 부르고 있다.



라바트의 바울교회와 바울동굴

바울이 몰타섬에서 3개월간 머물렀는데(행 28:11) 그 3개월간 섬의 추장 보블리오(당시 몰타를 관할하고 있던 로마의 파견 총독으로 여겨 짐) 소유의 땅에 있는 동굴에 머물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동굴은 몰타섬의 중앙지역 엠디나(MDINA)에 붙어 있는 라바트(RABAT)란 도시이다. 바울 일행이 섬에 도착한 이후, 그들은 당시 수도였던 엠디나 요새로 옮겨졌고, 조사를 받은 뒤 엠디나 외곽 지역인 라바트의 한 동굴에 머물면서 항해가 재개되는 봄철을 기다렸던 것 같다. 지중해는 지중해성 기후 때문에 겨울철에 비가 오고 풍량이 심해 로마의 항행법에 의하면 12월~2월까지 배 운행을 금지하였다. 그런 연유로 바울은 3개월간 몰타에 머무르게 되었다. 섬에 있던 3달 정도 바울이 머물렀던 바울 동굴은 현재 라바트의 가장 중심지 광장에 있으며, 이 동굴 위에는 바울교회(보블리오교회라고도 함)가 세워져 있다.



몰타의 옛 수도 엠디나(Mdina)

엠디나는 그 역사가 3천 년이나 된 몰타의 고대도시이다. 엠디나는 성 요한 기사단이 오기 이전까지 몰타의 정치적 중심지이자 수도였다. 몰타에서 지형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에는 옛날부터 부유한 귀족들과 상류층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였다. 작은 이 고대 도시가 규모는 작지만 페니키아인들이 지은 성을 로마인들이 도시로 개발한 후, 그 후에 다시 아랍인들이 이주해 와 거리 곳곳에 아랍과 로마시대의 양식이 섞인 독특한 중세 도시 풍경을 볼 수 있다.

엠디나 바울 대성당(The Cathedral)

엠디나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다. 60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다가 몰타 인근 지중해에서 난파당하고 석달 정도 이 섬에 머무는 동안 몰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보블리오는 자신의 아버지와 지역의 많은 병자들을 기도로 낫게 해준 것을 계기로 기독교로 개종하고 후에 몰타 최초의 감독이 되었다. 그후 3세기경에는 몰타 사람 대부분이 기독교인이 되었다. 4세기에 보블리오의 집터로 여겨지



는 이곳에 사도 바울을 기념하기 위한 건물을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몰타 최초의 교회인 '바울 대성당'이다.

발레타(Valletta)

1980년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발레타는 1565년 성 요한 기사단이 오스만 터키의 3만 대군을 물리친 이후 1566년부터 계획적으로 만든 요새화된 도시이다. 르네상스의 건축법과 당대 도시 계획의 첨단 기술을 결합하여 도시 전체를 성벽과 보루로 둘러싸고 내부 구간 정리를 했다. 완성은 1571년, 도시명 발레타(Valletta)는 당시 몰타 기사단 단장이자 도시 완성에 이바지한 장 파리조 드 라 발레트(Jean Parisot de La Vallette)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 도시 발레타는 건너편에서 보면 길고 큰 군함이 바다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발레타의 바울 난파선교회

바울 난파선교회는 바울이 난파되었던 것을 기념하여 건축하였는데, 이 교회에는 중요한 두 가지 유물이 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참수당할 때 사용했던 기둥이다. 전통에 의하면 이 기둥은 로마의 성 밖에 있는 사형장에서 참수당할 때 사용되었던 일부라고 한다. 바울이 죄수로 로마로 호송되면서, 풍랑을 만나고 독사에 물리면서도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이 섬에 전시하기 위해 로마에서 가져온 것이다. 두 번째는 바울의 독사에 물렸던 손목 관절이 있다. 바울이 몰타섬에 상륙했을 때 모닥불을 피우려고 나뭇가지를 집어 불에 넣었는데 그때 불에 있던 독사가 바울의 손목을 물었다. 그러나 바울은 독사를 집어 불에 던져 넣었고 그는 무사하였다(사도행전 28:1-6). 여기에 전시된 손목은 바로 그때 바울의 손목이라고 한다.



시칠리아

시칠리아는 이탈리아 영토로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이다. 삼각형의 섬 모습 때문에 옛부터 트리나크리아(Trinacria, 희랍어로 삼각형이란 의미)란 이름으로 불리워졌다. 시칠리아 도시중 하나가 '시라구사'(Siracusa)이다. 사도 바울이 몰타에서 시라구사로 도착하였을 60년경에는 로마가 시칠리아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다. 시칠리아는 희랍문명의 절정기 작품들을 많이

보존하고 있다. 특히 희랍 극장들과 신전들, 당시 정치 기관들과 각종 건축물들의 원형 모습 들을 잘 보존해 놓고 있다. 그 외 로마시대의 극장들과 모자이크와 같은 유적물 들도 전해오고 있으며, 여러 민족들의 지배하에 놓이면서 많은 예술들이 복합되어 발전된 특이한 형태의 문화를 이루고 있다.

바울이 3일간 있었던 시칠리아 시라구사의 요한 카타콤

로마에는 바 울이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처음 갇혀 있던 '마메르툼 감옥'으로부터 2년간의 셋집, 그리고 참수당한 참수터, 지하 초대교회였던 카타콤 등 초대교회 유적들이 당시의 모습 그대로 많이 남아 있다.

타오르미나

타오르미나는 시칠리아섬에 있는 도시로 프랑스 영화 그랑 블루의 촬영지로 유명하다. 유럽인들 사이에서는 휴양지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도시이며, 기원전 8세기 시칠리아를 점령했던 고대 그리스인들이 외부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 이오니아 해안선을 따라 절벽위에 세운 도시다. 타오르미나 마을에서 가장 긴 메인스트리트인 움베르토 1 세 거리는 양쪽 길가의 상점들이 모여 있으며 거리의 중간 정도에는 4월 9일 광장 및 점낭 테라스가 있어 웅대한 파노라마를 바라볼 수 있다. 고대 그리스 극장이라고도 하며 기원전 3세기에 지어진 그리스식의 반원형의 극장으로 바다가 보이는 절벽위에 세워져 경치가 뛰어나다. 지름은 최대 109m로 시칠리아에서 두 번 째로 크며 관객석에 올라가 이 극장을 바라보면 열주의 건너편에 푸른 바다와 에트나산의 웅장한 모습이 매우 아름답다.



나폴리

나폴리는 이탈리아 남부 베수비오산과 플레그레이핑원 사이의 나폴리만에 위치한다. 이탈리아에서 로마와 밀라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시로, 나폴리항은 이탈리아 남부의 핵심 항만으로 세계 3대 미항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나폴리는 역사적으로 여러 지역 국가의 수도였고 현재는 이탈리아 남부 캄파니아주의 주도로 대도시 나폴리탄(Neapolitan)으로의 성장을 추구하면서 밀라노와 경쟁하고 있다.



폼페이

폼페이(Pompei)는 이탈리아 고대도시로 캄파니아주 북서부 나폴리만 연안 베수비오산 남쪽 기슭에 있다. 폼페이는 교통의 요충, 비옥한 토지를 배경으로 일찍이 오스크인이 촌락을 이룬 뒤, BC 8세기 이후 그리스의 식민자 에트루리아인이 이주하면서 마을이 확대되었다. 로마 부유층의 휴양지로서 별장은 호화로운 벽화·조각·모자이크로 장식되고 수도·포장로·상점도 갖추어졌다. 최성기 인구가 약 2만명에 이르렀으나, 63년 대지진으로 재해를 입고 다시 재건되었으나 79년 8월 24일 베수비오 화산의 대폭발로 매몰되었다.



보디올 Pozzuoli

보디올은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만에 위치한 항구 도시이다. 그리스 고대에 유황을 수출하는 지역에 있었으며 일찍이 철공업이 발달하여 무기에서 농기구에 이르기까지 각종 철제품들을 대량 생산했던 곳이다. 특히 곡물을 실어나르는 대형 상선들이 이곳을 드나드는 동서 교통의 요지중 하나였다. 따라서 이곳은 은행이 발달하여 소아시아의 5개 도시의 금융권을 장악하고 있었을 정도였다. 이곳의 유적으로는 아고라(시장) 건물과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전, 원형극장 등이 근래에 발굴되어 번영했던 옛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 바울은 수라구사를 떠나 배로 이곳 보디올에 도착하여 이곳에서부터 육로인 아피아 가도를 따라 로마에 들어갔다(행 28:13). 오늘날 항구 옆에는 BC 5세기께 그리스 제우스 신전 유적이 있다. 그리고 항구 옆 해안가에는 바울이 이곳에 기착한 것을 기념하는 바울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교회 앞에서 바울이 보디올에 도착했다는 사도행전 28장 1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다.

사모스 섬 출신의 이주민들에 의해 세워진 이 도시는



있는데 교회 앞에서 바울이 보디올에 도착했다는 사

베네딕토 수도회 본원인 몬테 카씨노 수도원

서기 529년 베네딕토회를 창설한 성 베네딕토가 직접 세운 베네딕토회의 첫 번째 수도원이면서 유럽에서 체계적인 수도원을 구현한 최초의 수도원이다. 이 수도원은 전 세계에서 11곳 밖에 없는 교황청 직속 자치수도원이기도 하다. 베네딕토가 엄격한 규율로 수사들을 지도하자, 수사들은 베네딕토를 암살하려고 포도주에 독약을 탔다. 베네딕토가 음용 전에 축복하자 포도주잔이 돌 맞은 유리창처럼 깨어졌다. 그 후 베네딕토는 그 수도원에서 나와 새로운 수도원을 세웠다. 베네딕토는 기존의 수도원의 규율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취사선택하여 새로운 규율을 만들고 그의 제자들을 길러내었고, 이후로 베네딕토회 수도원이 많아지면서 베네딕토 규칙서는 수도자를 위한 하나의 거대한 규범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성베드로 대성당과 광장

바티칸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인 성 베드로 대성당은 349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베드로 성인의 묘지 위에 세워졌고 실베스트로 교황이 396년에 대성전으로 축성하였다. 그러나 이 성전은 이민족의 잦은 약탈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보았고, 그때마다 보수작업이 뒤따르긴 했으나 원래의 모습은 찾을 길이 없었다. 마침내 1503년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상갈로의 줄리아노에게 성전의 재건축 계획을 세우도록 하여 브라만테의 설계에 따라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브라만테는 로마에서 가장 역사성이 깊은 판테온의 돔 형태와 화려하고 아름다운 기둥을 도입하고자 했다. 도중에 몇 차례의 변형이 있었으나 브라만테의 설계는 막판에 건축 책임자였던 미켈란젤로에 의해 다시금 채택됨으로써 오늘에 이르도록 남아 있다. 1666년 완성된 성 베드로 광장은 베르니니가 설계한 광장이다. 광장에서 성 베드로 대성당까지 이어지는 콜로네이드는 284개나 되는 기둥이 받치고 있으며 기둥 위에는 140개의 가톨릭 성인 조각이 놓여 있다. 정교한 조각들은 모두 베르니니의 제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바티칸 박물관

로마 여행에서 놓쳐서는 안 될 최고의 보물이 바로 바티칸 미술관이다. 바티칸 미술관은 미켈란젤로의 대작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이 있는 시스티나 성당을 필두로, 바티칸 시국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궁전, 미술관, 박물관을 전부 지칭한다. 약 1,400실에 이집트, 그리스, 아시리아 등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조각품, 명화, 유물들이 소장되어 있어, 바티칸 미술관의 매우 중요한 작품들만 둘러보는 데에도 약 2시간이 소요됩니다. 미술관 내부는 매우 넓고 레스토랑과 카페, 북센터도 있으니 이곳에서 하루를 보내며 차분히 관람하는 것이 좋다. 3층 입구에서는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를 대여해 준다. 또는 전문 가이드가 동반하는 박물관 투어에 참여하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어 감동이 두배가 될 것이다. 일 년 내내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바티칸 미술관은 인파로 인한 혼잡을 막기 위해 일방통행으로 관람하도록 되



어 있다.

콜로세움

70년경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에 의해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80년에 건축이 끝나 100일 축제 기간 동안 그의 아들인 티투스 황제가 개막식을 올렸다. 온천 침전물 대리석으로 건축된 이 커다란 원형 건물은 처음에는 플라비아누스 원형 극장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으며, 이곳에서 열리는 검투사 경기를 보러 찾아드는 5만 명 가량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었던 거대한 규모의 경기장이다. 현재는 원형의 3분의 1만 남아 있는데 장축지름은 187m이고 단축지름은 155m, 둘레 527m, 높이 48m의 타원형 건물로 1층은 도리아식, 2층은 이오니아식, 3층은 코린트식으로 각 층마다 양식을 달리했으며 외벽은 아치 80개가 둘러싸고 있다. 로마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적지다.



바울 참수터

기원 후 68년(추정) 로마의 5번째 황제 네로시절 로마에서 순교한 사도 바울의 참수터에 세워진 교회가 세 분수 교회로 이탈리아어로는 Tre Fontane(트레 폰타네)인데 이는 바울의 목을 대리석 기둥으로 된 단두대에서 참수하였을 때 기울어진 지형 탓에 그의 목이 땅에 세 번을 튀어 떨어졌는데 그의 목이 닿은 땅에서 즉시 물이 솟아났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도 그 단두대는 온전히 보관되어 있고 목이 떨어져 물이 솟았던 자리에는 표식이 있다. 현재 세워진 교회는 여러번 개축 하여 1599년에 지어졌다. 그 교회 앞에 10m쯤 돌로 된 길이 있는데, 이 길은 바울 당시의 길이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돌들을 밟고 형장으로 끌려갔다.



카타콤

네로 황제 시대로부터 시작하여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이 있기까지 기독교인들은 로마제국 시대에 수많은 박해를 받았다. 이 박해 시절에 기독교인들은 자유롭게 예배의 모임을 가질 수 없었다. 이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모이곤 했는데 그중에 가장 모이기 안 전하고 좋았던 장소가 바로 카타콤 지하 무덤이었다. 이들은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순교당한 신자들의 무덤도 그 안에 마련하



였다. 이렇게 되자 지하 무덤인 카타콤이 점점 확장되어 갔다. 카타콤은 로마제국 치하 기독교인들의 실제적인 피난처였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였고, 또한 죽어서 먼저 떠난 순교자들 가까이에 있고 싶어 했던 그들만의 보금자리였다. 기독교가 자유를 얻는 313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카타콤 성지순례는 거의 400년 동안 계속되었다. 현재 발견된 카타콤에 가보면, 그 당시 성지순례를 하던 신자들이 순교자의 무덤이 있던 벽 위에,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 드렸던 신앙고백이나 기도문 등을 볼 수 있다.

거룩한 계단교회(성 계단 성당)

라테라노 대성당(라테란노 성요한 주교좌 대성당) 맞은편에 위치하는 성 계단성당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당의 28개 계단을 오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을 묵상하면서 무릎으로 올라간다. 이 계단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로마 총독 관저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셨을 때 오르고 내리시면서 채찍에 맞고 넘어지시고 피를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셨던 계단으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인 헬레나에 의해 326년 로마로 옮겨져 왔다. 처음에는 지금의 요한 성당인 옛 라테란 궁에 설치하였다. 그러다가 이 계단이 현재의 지성소 앞 위치로 옮겨진 것은 1589년 교황 식스투스 5세 때 건축가 도메니코 폰타나에 의해서이다. 나무로 덮여진 28개의 이 대리석 계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회개와 감사, 그리고 나아가 고난받는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면서 무릎으로 오르는 오랜 전통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모두 28개의 대리석 계단 위에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흘리셨다는 핏자국이 있는 것을 유리로 된 구멍을 통하여 볼 수 있다. 마르틴 루터도 로마 방문시(1512년) 무릎으로 이곳을 오르다가 계단 중간쯤에 올랐을 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로마서 1:17)는 음성이 들렸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뒤돌아 걸어 내려와서 독일로 돌아가 죄는 고행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는다는 깨달음 속에서 1517년 10월 31일 95개 조항의 신앙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의 발을 내딛게 되었다.



요한 대성당 (Basilica di San Giovanni in Laterano)

이 교회는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황제의 부인 파우스타가 교회에 봉헌하여 지상위에 최초로 공식적으로 지어진 교회이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 모든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라는 칭호를 받고 있다. 최초의 공식적인 교회 이름은 '구원자 하나님의 대성전'이었는데, 교황 그레고리우스(590-604) 때에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에게 다시 봉헌되어 이때부터 '라테란의 요한 대성당'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세계의 어머니 교회는 이 땅의 많은 어머니들이 고난을 받듯이 이 교회 역시 많은 수난을 겪었다. 455년에 반달족에 의해 약탈과 방화가 있었고, 896년에는 지진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1308년과



1361년 두 차례에 걸친 대화재가 있었다. 현재 모습의 교회는 16세기 말에서 18세기까지 약 150년간에 걸친 대대적인 수리로 복원된 것이다.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암브로시우스, 그레고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예로니모, 바실리우스,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아타나시우스, 그레고리우스, 토마스 아퀴나스, 보나벤투라, 에우세비우스, 베르나르도, 세레 요한, 사도 요한이 서 있다. 성당 내부에는 12사도가 자신들이 순교당한 도구를 들고 서 있다.



피렌체

피렌체(이탈리아어: Firenze, 영어: Florence 플로렌스)는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주의 주도이다. 피렌체현의 현청 소재지이며, 인구는 38만명이고 근교의 인구까지 합치면 총 약 150만명이다. 토스카나 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기도 하다. 피렌체는 아르노 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역사상 중세, 르네상스 시대에는 건축과 예술로 유명한 곳이었다. 중세 유럽의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였으며 종종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본고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오랜 세월동안 메디치 가문이 다스렸고, 1865년에서 1870년까지는 이탈리아 왕국의 수도였다. 매년 수백만이 넘는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으며, 1982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선정되었다.

피렌체 두오모

정식 명칭은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이며 아르노강의 북쪽, 피렌체시의 중앙부에 자리잡고 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 지도적 구실을 한 피렌체에 어울리는 대성당의 실현을 대망하던 시의 결의에 따라 1296년 아르놀포 디 캄비오의 설계로 착공되었다. 공사 도중에 그가 죽자 조토에 이어 A.피사노가 공사를 인계받아, 그동안 조토가 새로 계획하였던 정면 오른쪽의 대중탑을 거



의 완성하였다. 또한 그 뒤를 이어받은 프란체스코탈렌티는 1357년 이래 건물 규모의 확장을 추진하여 1421년경에는 폭 42m의 삼랑식 회당부와 지름이 이와 맞먹는 광대한 8각 평면의 내진, 그리고 여기서 세 방향으로 내물린 제실을 완성했다. 당내에는 예술의 도시 피렌체의 대성당에 어울리게 부속 미술관을 비롯한 여러 조각과 회화가 보존되어 있는데, 베첼로와 카스타뇨 등의 프레스코 벽화, 기베르티의 성유물 상자와 미켈란젤로의 조상 《피에타》 등이 유명하다.

단테 생가

르네상스의 단초를 열었던 불멸의 고전 신곡을 저술한 단테의 집으로 원래는 단테가 살던 집은 없어졌으며 피렌체시가 단테가 살았던 위치의 건물을 사들여 단테기념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단테 탄생 700주년이었던 1965년 문을 열어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시작하였으며 7개의 방에 단테의 침실과 서재 그리고 단테의 행적을 시대별로 정리해 놓았다. 이곳에서는 단테의 명곡이라고 할 수 있는 '신곡'을 전 세계 각국 언어로 번역하여 전시하고 있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수도원

구릉 위에 건설된 중세 도시 아시시는 성 프란체스코(St Francis, 1182~1266)가 태어난 곳이며,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직무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아시시는 로마 이전 시대부터 이탈리아반도 중부 지역의 문화의 중요한 중심지였다. 현재 이 도시의 모습은 12세기의 모습 거의 그대로 완전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성지순례자들 뿐 아니라 건축가 등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길 이 전 세계로부터 끊이지 않는다. 중세 아시시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의 일생과 업적이다. 그는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수도회 중의 하나인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창립하였으며, 1228년에 성인으로 추대되었다.



클라라 교회

1210년 16세의 귀족 가문 딸인 클라라는 어느날 프란체스코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산 다미아노 교회에 살기 시작한다. 프란체스코에 최 로 귀의한 사람 중 한 사람으로 생애를 통해 프란체스코를 정신적인 아버지로 여기고 살았다. 그녀는 후에 「청빈, 정절, 순종」의 맹세를 내세 운 프란체스코회의 여자 봉쇄 수도회인 “빈자들의 클라라 수도회”를 세웠다. 이 교회에 프란체스코가 들었다는 “무너진 내 교회를 수축하라”고 말한 십자가 원본과 클라라의 무덤과 유품들이 있다. 1253년에 클라라가 죽자 바로 건축하였다.



오르비에토

로마에서 북서쪽으로 96km 떨어진 팔리아강과 키아나강의 합류점에 있다. 해발고도 195m의 바위산 위에 위치하며, 케이블카로 오르내린다. 주변의 비옥한 농업지대의 유통·산업·관광의 중심지로 부근의 농촌에서는 포도가 많이 생산되며, '오르비에토'라는 이름으로 생산되는 백포도주가 유명하다. 연철·도자기·레이스 등의 수공업이 이루어지며, 철도와 도로를 통해 로마, 피렌체와 연결된다. 오르비에토 두오모는 아태리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고딕양식 건물중 하나인 주교좌 대성당이다. '볼세나의 기적'을 기리기 위해 300년에 걸쳐 지어진 이 대성당은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건축이 시작되었으나 수백년을 거치면서 고딕양식으로 변모했다.



로마



스페인광장



트레비 분수



판테온



콘스탄티누스 개선문



포르로마노



베네치아 광장